교회소식

- 사경회 말씀과 오늘 주일예배 말씀 전해주시는 Dr. Bryan Widbin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경회를 섬기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교회 대청소로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 교육부: 2019 VBS
  - 일시: 6/27-29, (9:00am-12:30pm on 6/27-28 and 9:00am-2:00pm on 6/29)
  - 등록: 교회 홈페이지에서 **online 등록** 또는 신청서 직접 제출

섬기는 사람들

6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이승택 집사 (시 42)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송은주 집사
다음 주 친교: 김은영 집사, 윤정호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9권 23호 2019년 6월 16일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창세기** 수 8pm / 2층 친교실
풍요로운 삶 TBD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대표기도 ---------- 시 8 ---------- 이영순 권사
Prayer Psalm 8

찬양 ---------- "내게 강 같은 평화"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마태복음 28:16-20** ---------- 인도자
Word of God Matthew 28:16-20

설교 ---------- **"The Right Church"** ---------- Rev. Dr. Bryan Widbin
Sermon

✱찬송 ---------- 497장(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 다함께
Hymn I Love to Tell the Story

✱축도 ---------- Rev. Dr. Bryan Widbin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Memo

지난 주 주일 말씀

감추어졌음이니라 골로새서 3:1-4

'위의 것을 찾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현실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영적인, 신앙적인 일에만 몰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자세한 권면들은 모두 사람들과 살아가는 현실적인 관계들, 특히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당당하고 너그럽게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책임이 있으니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로마제국의 시민이 변방 식민지에 가서 살아도 로마법의 보호를 받고 로마법 앞에 책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나,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 명부에는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아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남들에게 내보일 만한 것이 없어도 자신의 삶과 하는 일을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열심히 삽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고귀한 생명이 나타날 날이 있을 줄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영광이 완성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슨 귀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이웃을 유익하게 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감춰져 있으나 진짜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 주어진 사명,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